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43호 (2014-22) 발행일 : 2014. 06. 06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50세 이상의 중 고령자들 중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은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계속근로를 하더라도 빈곤의 가능성이 완전은퇴보다 높게 나타남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인 경우 퇴직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했을 때도 여전히 임시일용직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노후에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생애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김재호
고령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 OECD 34개국 중에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음

○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7.0%, 그리고 2011년에는 48.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시장의 비활성화를 들 수 있지만

– 국민연금수급자수 확대 및 2008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2013년 기준 매월 96,800원이 지급되고 있음¹⁾

* 본 원고는 '김재호(2014),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의 노동시장 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연구, 30(1), pp.1-26'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함

1) 기초노령연금액은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당해 7월에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최근 2014년 5월에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되고 오는 7월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최대 20만원 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예정임

- 이처럼 노후소득을 위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 55세 이상 64세까지 고령층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냄

○ 2008년 61.8%, 2010년 62.7%, 그리고 2012년 64.7%로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2012)

- 우리나라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족한 노후소득으로 인한 생계형 취업으로 볼 수 있음

○ 장지연 외(2008)²⁾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소득 특성은 높은 빈곤율과 함께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현저하게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 퇴직시스템은 절벽(cliff) 시스템

○ 우리나라 퇴직시스템은 퇴직과 함께 소득이 끊기는 절벽 시스템으로 노동자가 생애주기 관점에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점보다 빠른 경우가 많으며, 공식적인 정년퇴직연령은 연구자 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3~56세 정도로 추정

○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 비자발적인 경우 자발적인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의 이행에 따른 위험이 보다 심각한 형태로 다가 올 수 있음

- 비자발적인 은퇴는 자신이 예상했던 은퇴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은퇴보다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IMF 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명예퇴직제도 등의 조기퇴직제도를 통해 확대되었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사유 뿐만 아니라 생애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 월평균 소득수준, 그리고 공적연금가입여부에 따라 노후소득준비에 차이를 발생시켜 퇴직후 다시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하는 소위 교차일자리진입(bridge job)³⁾의 가능성을 높임

■ 현시점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고령자의 고용은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인력부족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

○ 둘째, 중 · 고령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빈곤문제를 완화시켜 노인빈곤층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셋째, 고령자들의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은 높은 인적자본으로 이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면 고령화 되는 노동력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음

○ 끝으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일에 대한 보람과 사회적인 유대감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얻을 수 있음

2) 장지연 · 신동균 · 신경아 · 이해정(2009). 중 · 고령자 근로생애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3) 교량적 일자리라것도 사용됨.

2. 경제활동상태별 종사상지위의 변화⁴⁾

■ 경제활동상태의 개념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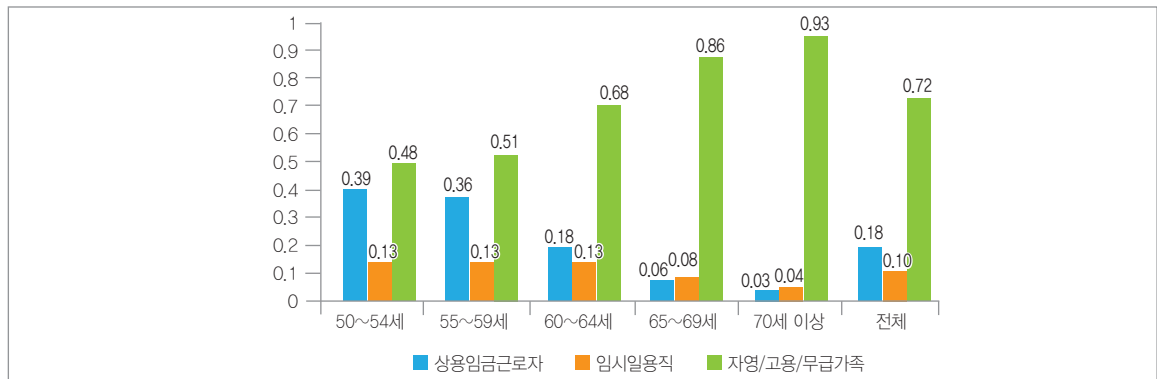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중 ·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의 목적에 따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를 하는 집단, 퇴직후 재진입하는 가교일자리에 속하는 집단, 그리고 완전 은퇴한 집단으로 구분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를 하는 50세 이상의 중 · 고령자들의 특징

○ <그림 1>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50세 이상의 중 · 고령자들 중의 18%만이 상용임금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시일용직은 10%,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가 72%를 차지

- 첫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상용임금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특히 60~64세에서 급격히 감소
- 둘째, 임시일용직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만 상용임금근로자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서서히 줄어들어 60~64세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65~69세에서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
- 셋째,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는 55~59세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60~64세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70세 이상에서는 93%가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

[그림 1] 연령대별 생애 주된 일자리 계속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후 가교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 <그림2>의 전체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가 상용임금근로자였다가 퇴직후 가교일자리에서도 상용임금근로자인 비율은 29%, 임시일용직은 36%,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한 비율은 35%로, 상용임금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용임금근로자는 계속 남아있을 확률은 점차 줄어들고 임시일용직으로 이동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이는 안정된 일자리로 있으면서 자산을 축적한 상용임금근로자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후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됨

4)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를 사용

○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이었던 중 · 고령자의 58%는 여전히 임시일용직을 유지하고 있고, 상용임금 근로자로 15%,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28%로 이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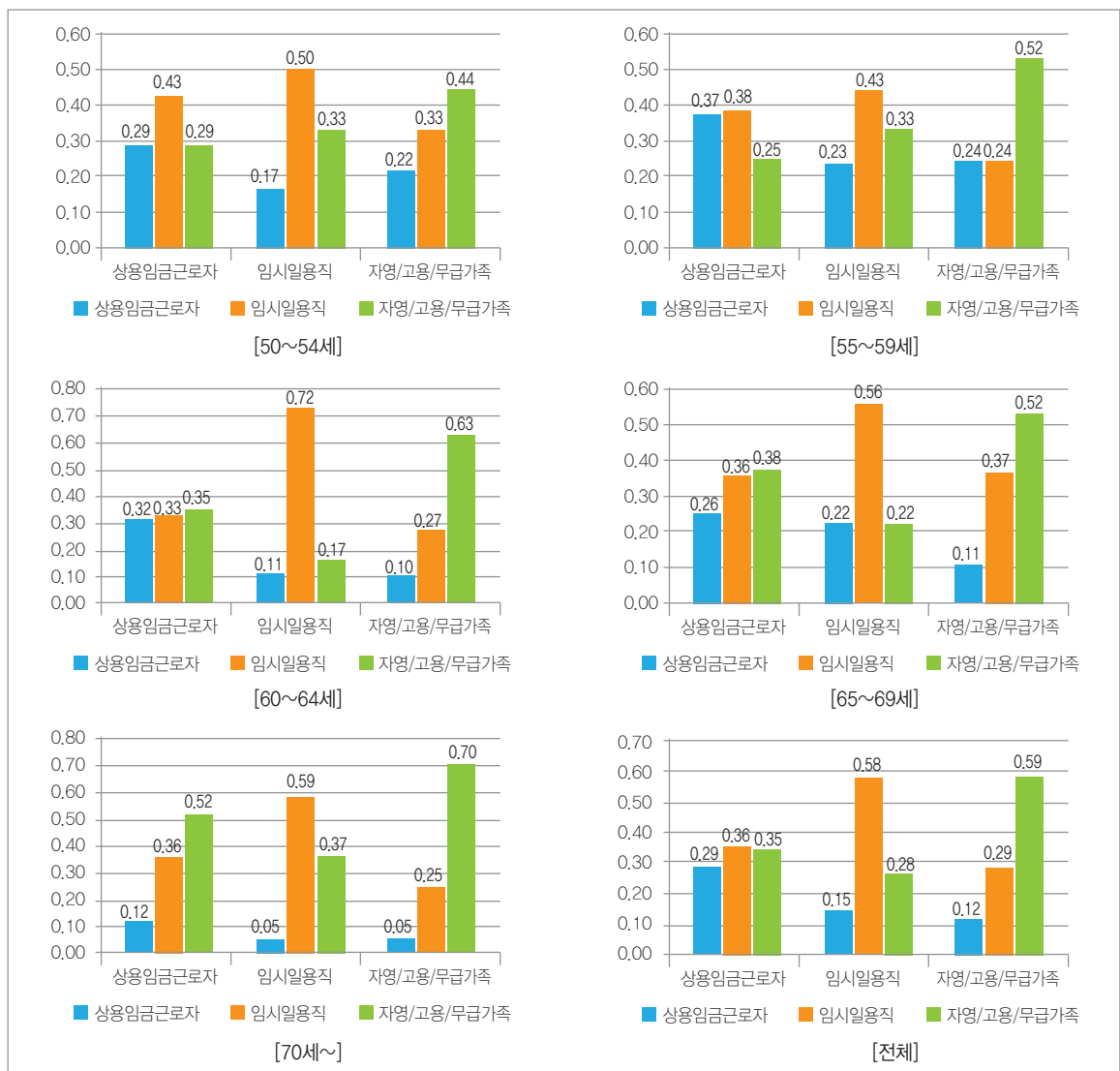
- 이러한 높은 임시일용직 유지율은 연령대가 높아져도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나 특히 60~64세 구간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시일용직의 72%가 가교일자리에서도 임시일용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임시일용직을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인 경우 가교일자리에서도 여전히 임시일용직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노후에도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마지막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자영/고용/무급가족에 종사하던 중 · 고령자들 중에서 59%가 여전히 가교 일자리에서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용임금근로자로 12%, 임시일용직으로 29%로 이행함

- 전 연령대에서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별가 높아질 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음

[그림 2] 연령대별 가교일자리 근로자의 종사상지위의 이행률



3. 실증분석

■ 경제활동상태별 · 빈곤상태별⁵⁾ 기술통계

- 주된 일자리 계속 근로자와 가교일자리근로자의 남성비율이 완전은퇴보다 다소 높았으며 비빈곤층의 남성 비율이 빈곤층보다 높게 나타남
- 50~59세는 계속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60~69세는 가교일자리의 비율이 높아 비빈곤층의 이 연령대의 비율이 빈곤보다 높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완전은퇴가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학력은 경제활동상태별로 분포의 큰 차이가 없지만 비빈곤층에서 고학력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계속근로, 가교일자리, 완전은퇴로 갈수록 배우자, 가구원수, 경제활동하는 가구원수가 있는 비율이 낮아지고, 비빈곤층에서도 배우자, 가구원수, 경제활동하는 가구원수가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공적연금가입비율은 계속 근로자가 가장 높고 비빈곤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 생애 주된 일자리의 공적연금가입이 노후소득준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마지막으로 빈곤층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으로 은퇴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 은퇴상태별 · 빈곤상태별 기술통계

변수		경제활동상태			빈곤여부	
		주된 일자리 계속 근로자	가교 일자리	완전 은퇴	비빈곤	빈곤
가구 특성	성별 (남=1)	0.78 (0.41)	0.73 (0.45)	0.58 (0.49)	0.74 (0.44)	0.58 (0.49)
	50~54세	7.54	3.5	0.5	4.69	0.99
	55~59세	20.56	19.05	5.58	18.78	4.86
	60~64세	24.14	24.79	11.94	24.24	10.31
	65~69세	17.88	25.49	18.16	21.15	18.14
	70~74세	17.37	16.39	27.52	17.05	28.94
	75세~	12.52	10.78	36.31	14.08	36.77
	학력 (고졸이상=1)	0.33 (0.47)	0.37 (0.48)	0.31 (0.46)	0.45 (0.50)	0.16 (0.37)
	배우자 (유=1)	0.83 (0.38)	0.73 (0.44)	0.57 (0.50)	0.75 (0.43)	0.58 (0.49)
	가구원수	2.64 (1.28)	2.44 (1.14)	2.05 (1.11)	2.59 (1.24)	1.92 (1.00)
	근로하는 가구 원수	1.68 (0.82)	1.49 (0.80)	0.36 (0.67)	1.30 (0.99)	0.58 (0.77)
	주택 (자가=1)	0.86 (0.35)	0.77 (0.42)	0.73 (0.45)	0.80 (0.40)	0.74 (0.44)
	세대 (1세대=1)	0.55 (0.50)	0.54 (0.50)	0.69 (0.46)	0.51 (0.50)	0.76 (0.43)
	서울	14.3	16.67	17.58	20.32	11.13
	광역시	19.54	25.77	32.95	27.75	27.29
	도	66.16	57.56	49.46	51.93	61.58

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빈곤의 정의는 가구의 경상소득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를 의미

〈표 1〉 계속

변수		경제활동상태			빈곤여부	
		주된 일자리 계속 근로자	가교 일자리	완전 은퇴	비빈곤	빈곤
생애 주된 일자리	상용임금근로자	19.03	43.00	36.24	42.66	20.2
	임시일용직	9.71	18.63	19.01	14.02	19.7
	자영/고용/무급	71.26	38.38	44.75	43.32	60.1
	공적연금 (가입=1)	0.59 (0.49)	0.48 (0.50)	0.35 (0.48)	0.55 (0.50)	0.29 (0.46)
	월급여 (천원)	1,528 (1,419)	1,254 (1,342)	1,086 (1,270)	1,603 (1,510)	753 (845)
	은퇴사유 (타의=1)	-	0.48 (0.50)	0.58 (0.49)	0.47 (0.50)	0.63 (0.48)
	빈곤	0.33 (0.47)	0.27 (0.45)	0.54 (0.50)	-	-
현재 일자리	상용임금근로자	19.03	20.45	-	26.53	3.97
	임시일용직	9.71	36.55	-	24.23	18.54
	자영/고용/무급	71.26	43.00	-	49.23	77.48
관측치		783	714	1,399	1,683	1,213

■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상태선택과 빈곤결정방정식의 오차항간의 상관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는 내생적 이변량 프로빗 모형(endogenous bivariate probit model)을 사용⁶⁾

○분석의 대상을 생애 주된 일자리의 모든 종사상지위를 포함하는 전체집단과 상용임금근로자만으로 구분하여 분석

■ 생애 주된 일자리 계속근로의 빈곤결정요인 분석결과

○종사상지위와 무관하게 생애 주된 일자리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빈곤결정요인을 살펴보면,
 - 생애 주된 일자리에 완전 은퇴를 하는 경우보다 계속근로를 할 경우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대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 계속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세한 자영/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들로 오히려 생애 주된 일자리에 계속 근로를 한다면 소득이 완전 은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생애 주된 일자리가 상용임금근로자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 상용임금근로에 계속 근무할수록 완전 은퇴를 한 경우보다 빈곤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교일자리선택의 빈곤결정요인 분석결과

○종사상지위와 무관하게 생애 주된 일자리에 은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완전 은퇴를 하는 경우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남

○생애 주된 일자리가 상용임금근로자인 경우 가교일자리 진입은 빈곤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6) 경제활동상태결정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종사상지위를 포함한 전체에서는 $H_0: \rho=0$ 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내생적 이변량 프로빗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였지만 상용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각되지 못해 프로빗모형을 사용

〈표 2〉 생애 주된 일자리 계속근로의 빈곤결정요인 분석결과

변수	생애 주된 일자리 계속근로 vs 완전은퇴		가교일자리 vs 완전은퇴		
	전체	상용임금근로자	전체	상용임금근로자	
경제활동상태	1.343*** [0.222]	-0.556* [0.288]	-0.873*** [0.302]	0.343** [0.157]	
성 (남=1)	0.112 [0.0935]	-0.281 [0.202]	0.266*** [0.0993]	-0.124 [0.178]	
연령대 (50~54세 기준)	55~59세	0.714*** [0.259]	5.325 60~64세 [0.284]	-0.259 [0.284]	0.434 [0.497]
	60~64세	0.947*** [0.264]	5.098 70~74세 [0.285]	-0.27 [0.285]	0.37 [0.486]
	65~69세	1.298*** [0.275]	5.044 [117.1]	-0.253 [0.294]	0.587 [0.478]
	70~74세	1.644*** [0.275]	5.335 [117.1]	-0.141 [0.330]	0.939** [0.478]
	75세 이상	1.694*** [0.286]	5.145 [117.1]	-0.263 [0.345]	0.759 [0.478]
학력 (고졸=1)	-0.411*** [0.0929]	-0.546*** [0.138]	-0.514*** [0.0785]	-0.445*** [0.114]	
배우자 (유=1)	0.00432 [0.110]	0.0266 [0.209]	0.111 [0.0991]	-0.0935 [0.181]	
거주지 (서울기준)	광역시	0.369*** [0.0932]	0.367** [0.174]	0.352*** [0.100]	0.301* [0.158]
	도	0.153 [0.0992]	0.0141 [0.174]	0.360*** [0.0864]	0.189 [0.155]
가구원수	0.0353 [0.0396]	0.243** [0.104]	0.0842* [0.0483]	0.124 [0.0855]	
경제활동 가구원수	-0.501*** [0.0627]	-0.920*** [0.137]	-0.653*** [0.0774]	-0.737*** [0.108]	
주택 (자가=1)	-0.166** [0.0694]	-0.243 [0.162]	-0.197*** [0.0701]	-0.125 [0.140]	
세대 (1세대=1)	0.0842 [0.0811]	0.0509 [0.197]	0.0588 [0.0863]	-0.029 [0.162]	
생애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사위 (상용임금근로자 기준)	임시/일용직	0.335*** [0.109]	-	0.388*** [0.0929]	-
	자영/고용주/ 무급	0.0169 [0.144]	-	0.154* [0.0817]	-
생애 주된 일자리의 공적연금 (가입=1)	-0.280*** [0.0730]	-0.339** [0.152]	-0.181** [0.0760]	-0.375*** [0.127]	
생애 주된 일자리의 ln_월급여	-0.0935*** [0.0192]	-0.162*** [0.0613]	-0.0732*** [0.0158]	-0.110** [0.0536]	
생애 주된 일자리의 은퇴사유 (비자발적=1)			0.151** [0.0687]	0.265** [0.112]	
상수	-1.031*** [0.296]	-3.939 [117.1]	0.661	0.152 [0.625]	
ρ	-0.70142 chi2(1)=9.55049 prob>chi2=0.002		0.620848 chi2(1)=4.81534, prob>chi2=0.0282		
관측치	2,182	656	2,113	814	

*** p<0.01, ** p<0.05, * p<0.1

4. 정책적 함의

- 정부중심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하지 못함
 - 저출산 · 고령화의 심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 감소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 노인빈곤의 해결방안으로 노인 일자리창출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일자리들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저임금의 열악한 상태로, 노인빈곤의 대안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참여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가 상용임금 근로자인 경우 정년연장을, 임시일용직인 경우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상 구분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상용임금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를 통해 빈곤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수급시기를 가능한 늦추는 것이 이들이 은퇴 후 다시 새로운 가교일 자리를 찾는 것보다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임
 - 둘째, 기존의 생애 주된 일자리가 상용임금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일 경우 그리고 상용임금근로자보다 자영/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공적연금가입비율이 낮아 노후소득준비 부족으로 빈곤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은퇴후 노동시장 재진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들의 연령과 학력수준에 적합한 직업교육과 함께 정부와 시장을 통해 안정된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함
 - 특히,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애근로이력에 따라 꾸준히 노후소득대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을 경우 학력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연결이 중요
 - 셋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충분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은퇴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영세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리누리사업을 통한 사회보험가입의 확대를 통해 공적연금 가입의 확대 및 가입기간의 연장을 통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집필자 | 김재호 (고령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362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